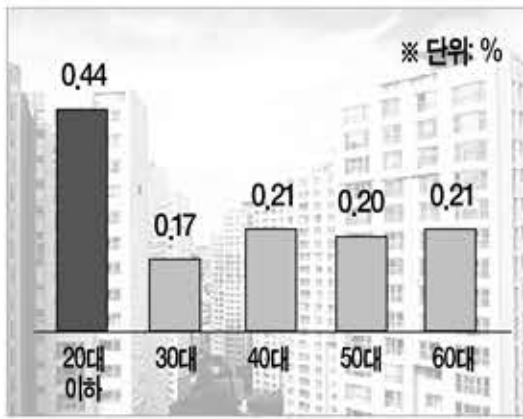


20대 이하 전·월세 대출 이자 연체 급증

20대 이하 청년들이 전·월세 대출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만 20대 이하의 연체율은 0.44%였다. 이는 금융당국이 나이별 연체율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8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시기 30대의 연체율은 0.17%, 40·50대는 각각 0.21%와 0.20%, 60세 이상은 0.21%였다.



▲ 2023년 2분기 연령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자료=금융감독원

대출의 이자를 갚지 못하면서 연체율이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상품은 만 19~34세 무주택자이면 소득이 없거나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학생이나 비정규직 청년들이 원룸 등 전·월세를 얻기 위해 대출받는 경우가 많다"며 "차주대출받는 사람은 직업이 없거나 일정하지 않은 경향이 있어 연체율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년층의 대출 상환 부담은 금융 시스템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30대 이하 차주의 소득 기반이 다른 나이에 비해 취약한 만큼 이들의 연체율이 예상보다 상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대 이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34조 2,500억원으로, 2018년 9월 말과 비교해 2.54배 불었다. 이 연령대 연체액은 같은 기간 2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약 7.5배 증가했다.

은행권에선 청년들이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 전·월세

'알뜰 소비' 트렌드에 백화점 울고 편의점 웃고



▲ 서울의 한 편의점 간편식 판매대에서 고객이 물건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 2분기 실적을 발표한 백화점과 편의점 업계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 같은 지표는 국민 소비 트렌드가 '알뜰 소비'로 기울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더팩트'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은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 보복 소비로 호황을 누린 백화점 업계의 실적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편의점 업계는 최근 물가 폭등으로 점심 도시락 구매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객이 늘어 전체 시장 매출 비중이 늘었다.

백화점 업계는 지난해 코로나 보복 소비로 명품(해외 유명 브랜드) 매출이 크게 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해외여행 재개로 소비가 분산되면서 명품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백화점 3사(신세계, 롯데, 현대)의 지난 5월 명품 매출 증가치는 1.9%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23.6% 늘어난 것에 비해 급감했다.

반면 편의점 업계는 선방을 외쳤다. 이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 발길이 알뜰 행사·배달 등 가격 유인책을 제공하는 편의점으로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점심값 폭등으로 편의점 간편식을 찾는 수요가 급증했다. 이에 올해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며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등에게 월 30만 원가량의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당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한 뒤 중앙정부와 사회보장 협의를 마쳤다.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든 '양육 공백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부모나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의 4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경우 최대 13개월간 월 30만 원의 돌봄 비용을 지급한다.

이는 부모 대신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현실을 반



▲ 서울시가 내달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등에게 아이돌봄비를 지원한다. 포스터=서울시

영한 정책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0~12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2,000명을 조사한 결과 47%가 가정 양육을 하고 있는데, 가정 양육자의 66.9%가 부모 외 아이를 주로 돌봐주는 사람이 '조부모'라고 응답했다.

부모가 민간 육아도우미를 선호하는 경우 서울시가 지정한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은 금액의 이용권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24~36개월 아이를 키우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000원) 이하 맞벌이, 한부모·다자녀가정 등이다. 돌봄아이 기준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에게 비용을 지급하는데, 타 시도에 거주해도 돌봄 활동이 가능하다.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셜 연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년 10% 벌금

• 파트 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동안 월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크레딧 점수	1점~29점	30점~39점
매월 프리미엄	\$506	\$278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 보험료는 2023년 현재 164.90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 내야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65세 생일 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메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를 약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 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Extra Help 자격

	Single	Couple
Income & Resources		
Monthly Income	\$1,822	\$2,465
Asset Limit	\$16,660	\$33,240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소셜연금, Extra Help,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상담 및 신청
Covered California 공인 에이전트
KIM YEJA (김예자)
Lic# 0F07964
T. 562.640.0643 714.773.2939
E-mail: 6400643@gmail.com
LEE JIHOON (이지훈)
Lic # 4276029
T.714.872.9377